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환영 및 소개의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목회자 또는 안내위원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 오늘(9월 11일)은 교회 설립 9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과 헌신의 뜻을 담아 '설립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 전교인 피크닉이 있습니다. 장소는 교회 옆에 있는 피크닉장입니다. 모두 참여하셔서, 서로를 알아가고 화합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전교인 성경일독' 이번 주 진도는 이사야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일독 진도를 따라 '하루 한 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일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성경일독반 강의는 교회 홈 페이지 혹은 페이스북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9월 12일(월) 정기운영회가 있습니다. 오후 6시 30분 김영봉 목사님 사택에서 모입니다.
- 다음 주일은 진급주일(Promotion Sunday)입니다.
- Centreville UMC에서 주관하는 'Stop Hunger Now' 행사에 우리 교회가 참여합니다. 9월25일(주일) 하루 동안 음식 봉투 3만개를 싸고 50개의 정수기를 조립하는 행사입니다. 미국 교회와 연합하여 선교에 참여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각자 사정에 맞게 참여하셔서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오전 9:30-10:45 혹은 11:00-12:15) 재정적인 후원도 할 수 있습니다.
- 조영진 감독/장기옥 목사 은퇴를 감사하는 예배가 9월 18일(주일) 오후 5시에 와싱턴한인교회에서 있습니다.
- 우리 교회의 설교 방송이 매 주일 오전 7시에 라디오 와싱턴 1310을 통해 전파됩니다. 방송비를 익명으로 헌금해 주신 교우님께 감사드립니다.

중보기도 제목

- 교우 모두가 '삼중 사귄'(Triple Communion)에 있어서 깊어지도록
- 와싱턴사귄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도록
- 새로운 목회자를 맞는 센터빌연합감리교회, 와싱턴한인교회 그리고 체스터브룩연합감리교회를 위해
- 육신의 질병 혹은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 연합감리교회의 부흥과 갱신을 위해
- 한국과 미국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예배와 성경공부 안내

예배 안내

주일 예배

한어권
오후 2시 / 본당
중보기도: 오후 1시20분 / 208호

Youth & EM
주일 오후 2시 / ROC

어린이 (Children)
오후 2시 / 본당 / 213-215호

새벽 기도회
(토) 오전 6시 / 본당
다른 요일은 개인 기도로 대신합니다.

찬양 새벽 예배
(매주 마지막 토) 오전 6시 / 본당

성경 공부

1. 제자반

성경일독반
(인도: 김영봉 목사)
수요일 / 저녁 7시 30분 / 213-215호

여성을 위한 성경필사나눔반
(인도: 도현주 사모)
목요일 / 저녁 7시 30분 / 218호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인도: 김영봉 목사)
토요일 / 아침 7시 30분 / 209호

2. 주제별 성경공부

청장년 나눔
화요일 / 저녁 7시 30분 / 김건우 집사 댁

9월 성경일독 진도

11일 (주일)	12일 (월)	13일 (화)	14일 (수)	15일 (목)	16일 (금)	17일 (토)
이사야 1-5장	이사야 6-12장	이사야 13-19장	이사야 20-27장	이사야 28-31장	이사야 32-35장	이사야 36-41장

주일 섬김과 봉사

예배준비: 공효선 권사/조정호 집사
바나바/새교우 영접: 장기만 집사/
고연정 집사/이환섭 집사/이수진 집사
성찬식 준비: 류수연 집사

9월 봉사 안내

안내와 헌금: 이수진 집사/최진수 집사
주일 친교: (오늘) 샘물속
(다음주) 동심속

www.kumckoinonia.org

주일 출석과 헌금 통계 (9월 4일)

한어 예배 (KM):	185	주일헌금:	\$337
영어 예배 (EM):	17	교회학교:	\$102
청소년 예배 (Youth):	29	주정/월정:	\$1,947
교회학교 (Sunday School):	20	십일조:	\$3,741
		감사헌금:	\$300
		기타:	\$280
		사랑헌금:	\$102
합계:	210명	합계:	\$6,809



6400 Old Centreville Road
Centreville, VA 20121
703 . 939 . 0559

바로 그 교회

PASTORAL JOURNAL

김영봉 목사

작년에 나온 어떤 책의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로 그 교회”라는 뜻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이상적인 교회상이 있습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그 이상에 가까이 가기를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이상을 포기하지 않고 '바로 그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이상을 포기하는 순간 교회는 타락의 길로 접어들니다.

9년 전에 매나싸스에 지교회를 시작한 이유는 '바로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열망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모교회를 떠나 황량한 벌판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수 많은 풍랑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그 교회'를 향한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누릴 가장 큰 축복이며, 우리 자녀들을 위한 가장 값비싼 투자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보고 싶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바로 그 교회'는 항상 우리를 앞서 가면서 우리를 향해 손짓합니다. 그 이상향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늘 부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향을 향하여 진실하게 걷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9년 동안 그렇게 한 길로 걸어 왔습니다. 그 길을 걸어 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잘못을 범하기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의 귀한 열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바로 그 교회'를 향한 여정에 함께 해 주신 모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여정에 새롭게 참여하신 교우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9년 전에 많은 교우들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저 또한 '바로 그 교회'를 이루고 싶은 열망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교회를 떠나 여러분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루 하루의 묵회 여정에 희열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날을 기억하며 또한 앞으로의 역사를 꿈꾸며 뜨거운 사랑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